

백제금동대향로의 조형성분석에 관한 연구 (중국 금상감박산향로와 비교분석)

신대택*, 박승철**
대전보건대학교*, 공주대학교 예술대학**

A study on a plasticity analysis for the Gilt-bronze Incense Burner of Baekje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with Chinese Inlaid Gold Boshan Xianglu-

Shin Dae-Teak*, Park Seung-Chul**
Daejeon Health Sciences College*, Kong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1993년 12월 23일 부여 능산리 고분군과 나성(羅城, 궁성을 감싸고 있는 성곽 사이 절터)에서 발견된 금동대향로(金銅大香爐)는 지금까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찬란한 백제미술의 진수였다. 이 사건은 1400년 동안 적막했던 세월의 시공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다가온 백제금동대향로는 마치 무덤 속에 누워있던 조상이 몸을 일으켜 우리 앞에 현신(現身)한 것처럼 무엇인가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 한 것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문화란 민족적이면서도 또한 민족을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시대의 요청이다. 한마디로 민족 없는 문화는 존재할 수 없지만, 민족만을 앞세운 문화 역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길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중심에서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고 융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백제금동대향로의 조형적 특징을 인식하고, 향로에 내제된 백제인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며, 조형성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백제문화상품에 접목 우리의 금속공예를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잊혀져가는 한국공예문화의 정체성과 한국공예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제어 : 백제금동대향로, 조형성, 문화의시대, 백제예술, 금속공예

Abstract The Baekje Gilt-bronze Incense Burner which was excavated in an ancient temple site in Neungsan-ri, within the City wall of Buyeo-Gun on 23rd December 1993, was a quintessence of the Baekje Arts that people could not have imagined until that time. The Baekje Gilt-bronze Incense Burner transcended 1400 years of time and space. The censer that finally came up to us delivered a kind of a powerful message to us. The power was so strong and mysterious that as if an ancestor who had been sleeping in the grave with a great silent had woken up and become alive to tell us something very precious. Baekje Gilt-bronze Incense Burner, unlike any other existing artifacts, might have a possibility that could provide an insight of the ancients' psych who once lived on our land. This kind of view from several archaeologists, therefore, made our hearts be filled with excitement and flutter. We call 21st century as an era of culture. This era requests that the culture needs to be ethnical but the culture also needs to go beyond that ethnic. In other words, a culture without an ethnic cannot exist, and a culture that puts an ethnic the very first before any other things cannot exist as well. Regaining our identities first and then embracing and harmonizing various cultures can be an wise way overcoming above problem. Hence, through this study, I intend to recognize characteristic of plasticity for Baekje Gilt-bronze Incense Burner, understand the world of Baekje people's spirit and thus provide an opportunity to shed new light on the Baekje Arts. By doing so, I would like to publicize a metal craft of Korea to the world. I also try to seek for an identity of Korea's craft culture which is receding and find a direction for the Korea's craft.

Key Words : Gilt-bronzeIncenseBurnerofBaekje, plasticity, era of culture, harmonizing, Baekje Arts, metal craft

Received 10 July 2013, Revised 12 August 2013

Accepted 20 September 2013

Corresponding Author: Park Seung-Cheol(Kongju National University)

Email: scpark@kongj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목적

백제금동대향로의 발굴은 ‘백제의 역사를 다시 써야한다’는 사학자들의 공감과 함께 1400년 전 백제가 부활하여 살아 숨쉬는 듯한 생동감과 완벽한 조형미에 늘 매료되어 왔다. 금동대향로를 제작한 장인의 섬세하고 형태 하나하나에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듯 무릉도원에 빠져든 착각과 함께 온몸에 전율이 스쳐간다. 금동대향로는 1993년 발굴 이후 20년이 지난지금도 많은 사학자들은 향로의 제작 편년과 문양의 출처에 대해 많은 이견(異見)이 있어 활발하게 재조명하고 있으나 조형예술이나 디자인 관련부분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금동대향로의 크기나 뛰어난 조형미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뛰어난 작품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금동대향로의 조형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예술적인 가치와 잊혀져가는 금속공예의 장인정신을 배우고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찾아 금속공예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문헌적 고찰과 박물관의 답사를 통해 백제 금동대향로와 중국 漢代의 대표적인 금상감 박산향로의 형태 비교적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문헌적 고찰을 통해

첫째, 백제금동대향로의 시대적 제작배경을 살펴보고 둘째, 향의 유래와 기능·용도에 따른 분류 및 백제금동대향로와 중국을 대표하는 금상감박산향로의 조형특징을 사진과 함께 비교해보고

셋째, 조형분석을 통하여 백제금동대향로의 뛰어난 조형미, 기능미, 재료 및 기법등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서론

2.1 향로

2.1.1 향의 유래와 기능

1) 향의 유래

향로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고대 이집트 제5왕조(BC 25세기~BC 24세기)의 향로(香爐)

가 있고, 미이라에 향료를 사용한 흔적이 있다. 또 구약성서의 《출애굽기》 《레위기》에 “향을 피운다” 또는 ‘유향(乳香)’이라는 말이 있고, 또 《일리아스》에 장미향을 부향한 향고(香膏: paste연고)를 몸에 바르는 풍습이 보이는 데서 4000~5000년 전으로 추정된다.[1]

향의 사용방법으로는 크게 도향(塗香)과 소향(燒香)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중 도향은 명향(名香)가루를 정수(淨水)에 혼합(混合)하여 몸에 바르는 방법이고, 소향은 향을 불살라서 쏘이는 방법을 일컫는다. 이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소향하려 향을 담아서 불을 피우는 그릇이 향로이다.

2) 향의기능

향의 기능은 대체적으로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실내의 해충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것이고, 둘째는 의복의 냄새와 좀벌레를 막는 것이며, 셋째는 사당이나 祭祀所의 신성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다. 불교가 들어오자 향로는 삼구족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 중국의 고전인 『周禮』·『秋官』은 인체에 해를 끼치는 독충과 좀벌레를 막아내기 위해서 훈초(薰草)를 태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기능의 하나는 좀벌레의 해로부터 편직물인 의복을 보존하는 것이었다.

3) 향로의 소재분류

향로는 재료에 따라 土製·陶製·金屬製·石製·木製 등으로 분류하며 고려시대에는 금속공예의 발전으로 금속제 향로가 매우 다양하게 등장한다. 토제와 목제향로는 열에 약해서 재료의 특성상 오래 전래되지 못했으리라 생각된다. 도자제는 비교적 고급스럽고, 자유롭게 형태의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었던 것으로 고려시대의 청자 향로들은

이를 잘 말해준다. 그러나 강한 내구성으로 인하여 가장 많이 사용된 재료는 금속이다.

2.1.2 형태와 용도에 따른 분류

향로는 사용기능에 따라 거향로(居香爐)·병향로(瓶香爐)·현향로(懸香爐) [표1-1]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incense burner

incense burner	Functional	거향로 [Fig. 1]	어떤 지정장소에 배치하여 공양하는 것. 박산형(博山形), 정형(鼎形), 삼족형(三足形), 장방형(長方形), 원통형(圓筒形), 상형(象形), 고배형(高杯形)
		병향로 [Fig. 2]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도록 20~30cm가량의 긴 손잡이가 달려있는 것
		현향로 [Fig. 3]	방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벽에 걸 수 있게 고리가 달려 있는 것
	use	예배용	불보살에 향을 공양하기 위하여 불단에 놓여지는 것
		완향용	수도자가 개인정화의 목적으로 주로 승방에 놓인 것
		의식행렬용	불보살을 예배하거나 의식행렬을 선도할 때 사용하는 것



[Fig. 1] Geo incense burner(Seohan Dynasty,China)
[Fig. 2] Byeong incense burner(Unified Silla)



[Fig. 3] Hyeon incense burner (Goryeo)

2.2 금동대향로의 제작배경

2.2.1 사회적 배경

향로제작에 또 다른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것은 기술자를 우대하는 백제의 사회제도를 들 수 있다. 백제예술작품의 우수성은 무엇보다도 금속공예작품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이렇게 백제금동대향로와 같이 뛰어난 예술작품이 탄생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당시 사회제도의 역할이 컸다. 왜냐하면 예술작품은 한 시대의 사회·정치·경제·문화·종교 등을 아우르는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백제시대의 종교적 바탕은 그들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기반이 되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장인들을 귀하게 여겼던 사회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당시 백제의 조정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공장 곧 공예 기술자들을 우대하였으며, 백제시대의 기와 혹은 금속공예 기술자들은 국가로부터 와(瓦)박사니, 노반(鱗盤)박사의 전문박사 칭호를 부여 받았을 뿐 아니라 관등까지 받은 어엿한 관인 신분이었다.[2]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백제의 뛰어난 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2.2.2 역사적 배경

백제대향로는 야심적인 스케일이나 상징체계로 볼 때, 말할 것 없이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시킨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백제대향로의 제작은 국가적인 대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우선, 국호를 ‘부여’로 변경했다는 것은 그에 따른 종묘와 제사체계의 정비를 수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명목상의 부여이긴 하지만, 만주 부여의 정통성을 계승한다고 한 이상 그를 위한 모종의 정비가 있었을 터이기 때문이다.[3]

백제대향로라는 새로운 제기가 만들어진 것은 이와 같이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사비천도는 곧 제2의 건국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에 걸 맞는 신화체계를 담고자 했으리라는 점이다.

셋째, 사비천도와 함께 발생할지도 모르는 토착민들의 동요와 혼란을 막기 위해 토착민들의 신화체계를 그들의 제사체계에 수용했으리라는 점이다.[4]

2.2.3 지리적 배경

백제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서해안을 끼고 있어 일찍부터 해상교통이 발달하여 4세기 후반에는 바다 건너 장강(長江, 陽子江)이남의 동진과 통교하면서 이 지역의 세련되고 우아한 중국 남조문화를 즐곤 받아들였다. 거기에 삼국 중 가장 기름진 농경지를 확보하고 있어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을 즐긴 백제인들이 이었던 만큼 그 풍토에 걸맞게 느긋한 마음으로 예술의 꽃을 피울 수 있었다. 이처럼 백제는 일찍부터 육로와 해로를 통해 각지에서 흘러들어온 외래문화를 흡수할 수 있는 천혜의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백제인 특유의 다양한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기질과 국제적인 감각,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미의식을 가미하여 변용 종합하려는 특성으로 백제금동대향로를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2.3 박산향로와 금동대향로의 형태비교

중국의 박산향로란 구체적으로 어떤 향로이며, 백제대 향로는 박산향로 [표1-2] 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백제대향로가 출토 되어 공개 되었을 때 많은 학자들은 이 향로가 중국의 박산향로를 모델로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5]

박산향로는 중국의 대표적 향로라 할 만 하지만 넓은 공간을 압도하는 백제 향로에 비하면 왜소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대좌(臺座)는 세 마리의 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매우 작고 빈약하다. 이에 비하여 금동대향로의 몸체는 바다의 파도로 윤곽을 삼고 당초무늬의 도식적 파도무늬는 금 상감으로 장식했다. 박산향로가 아무리 예술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공예품에 지나지 않아 기념비적인 백제 향로와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백제 향로의 원류는 이러한 중국 향로이며 모티프는 같지만 백제는 그것을 높은 차원의 예술품으로 승화(昇華)했다.

<Table 2> Comparison Form of the Gilt-bronze incense burner and Inlaid gold Boshan

Body	반원형의 대접모양을 한 몸체는 3단의 연꽃잎으로 구성함. 잎의 끝부분을 斜線紋으로 음각하여 사실적으로 묘사. 하부 연꽃잎에는 2줄의 음각선으로 복엽(復葉)처리. 상단과 그 아랫단 연꽃잎 외면과 상단의 연꽃잎 사이에는 여백의 27마의 짐승과 2명의 사람이 부조	운기문(雲氣紋)의 금상감은 마치물결처럼 봉우리사이를 몰아쳐 올라오고 있어 구름위에 등실 뜬 신성한 산악세계를 연출함. 몸체의 산봉우리가 뻗어나와 뚜껑부분을 절묘하게 숨김
Support	받침은 한 다리를 생동감 있게 치켜들고 있는 용의 모양을 형상화하여 입으로 몸체인 연꽃봉우리를 물고 있음. 용이 한쪽 발을 치켜들고 있으며 나머지 세 다리와 꼬리로 둥근 윤곽을 형성하여 안정되게 제작. 꼬리끝부분 인동문(忍冬文)처럼 도식화되어 윤기를 나타냈다. 뒷다리가 돌이 기단(基壇)을 이루듯 크고 둥글게 뻗는 듯 발사이의 빈 공간을 역시 운기문(雲氣文)과 꽃무늬로 연결	받침부분: 잔형, 3마리 용이 투조되어 몸체를 향하여 머리를 들고 비상하려는 형상. 버팀대아래에 넓어지면서 연결된 승반(承盤)형태
Whole Body	상념에 가득찬 봉황의 형상과 날아갈듯한 유연한 꼬리가 돋보이며, 받침, 몸체, 뚜껑의 전체적인 비례와 완벽한 균형감. 특히 투각한 용의 형태가 역동적이며 세다리와 꼬리는 지면에 삼각점을 이루어 안정되게 균형유지. 치켜세운 용의 발은 공간적인 구성과 수중에서의 하늘로의 힘찬 상승의 이미지를 연출함.	뚜껑부분의 중첩된 산봉우리는 환조의 부피감으로 힘차게 표현되어있으며 몸체와 받침부분은 전형적인 잔형태를 갖추고 있음. 산봉우리의 선을 따라 운기문의 금상감을 더하여 색채의 대비효과를 강조 받침부분은 투조처리하였고, 원형의 굽으로 바닥과 수평유지하여 안정감을 줌.

	Gilt-bronze Incense Burner	Inlaid Gold Boshan Xianglu
Photo		
Cover	산형(山形) 산의 강하고 두터운 입체감과 가는 선상감(線象嵌)이 대비. 봉황과 5악사와 기러기가 있음 호랑이, 코끼리, 원숭이, 멧돼지 등 모두 42마리의 짐승, 17명의 인물, 74곳의 봉우리가 부조(浮彫) 6종류의 식물, 20군데의 바위, 산 중턱을 가르며 난 산길, 산 사이로 흐르는 시냇물, 입체적으로 돌출되어 낙하하는 폭포가 생동감 있게 표현됨. 12개의 香煙口(봉황가슴부분2개, 뚜껑부분 10개)	봉황과 5악사와 기러기가 없음. 산형(山形).중첩된산봉우리(병행세선의 금상감) 사이로 야생동물(호랑이,곰,멧돼지)과 금수(禽獸),사냥하는 인물, 仙人등이 표현. 香煙口-산봉우리 사이에 위치

2.4 백제금동대향로의 조형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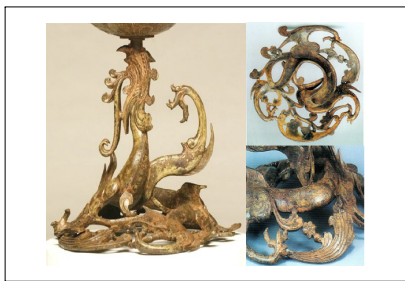
2.4.1 형태적 측면



[Fig.4] Composition of Gilt-bronze incense burner

이 향로 [그림4]의 전체적 비례감각은 백제인만이 창조해 낼 수 있는 것이다. 밑에서 넓게 퍼진 용 다리와 갑작스럽게 좁아지면서 큰 향로를 받들고 있는 용머리의 극적 결합은 백제의 석탑이나 석조(石槽)에서 발견되는

백제 특유의 조형감각이다. 머리를 번쩍 든 용의 모습 [그림5], 물에 핀 연꽃 [그림6], 그 위에 솟은 산악, 그 상부의 다섯 봉우리에 앉은 기러기들 [그림7], 그리고 정상부에 날아갈듯 한 봉황, 이들 전체 조형은 아래에서 위로 향한 한없는 상승작용을 빼어나게 표현했다. 말하자면 용으로 상징되는 물(水)에서 땅(大地)을 거쳐 하늘(天)에 이르는 우주가 이 향로에 고스란히 응결되어 있는 것이다. 마침내, 뚜껑의 산속 계곡에서 향연(香煙)이 피어오를 때, 그것은 창조의 근원을 상징하는 ‘용(龍)의 입에서 뿜어 나오는 기운(雲氣)’가 아닌가.



[Fig. 5] Part of support and bottom



[Fig. 6] Part of body and inner



[Fig. 7] The section of cover and planner figure

이 작품에서 특히 가장 근원적인 존재인 용의 탄력 있는 웅자(雄姿)를 보면 감탄을 금할 수 없다. 용틀임의 자세로 고개를 곧추 들고 있으며 뿜은 변형된 인동문(忍冬文)으로 도식화됐다. 앞의 오른 다리는 땅을 딛고 왼 다

리는 번쩍 들었는데 왼 다리의 다섯 발가락의 힘차고 미묘한 표현은 어느 천재(天才)의 아이디어였을까. 용머리 앞의 허전한 공간을 메우며 동시에 비록 거리가 있지만 묵중한 용기를 받쳐 주고도 남음이 있다. 가늘고 긴 몸체가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아가는 꼬리 끝이 뒤쪽 오른 다리 발가락에 닿아 있다. 꼬리 끝이 역시 인동문(忍冬文)처럼 도식화되어 운기를 나타냈다. 뒷다리 둘이 기단(基壇)을 이루듯 크고 둥글게 뿜도는 듯한데 발 사이의 빈 공간을 역시 운기문(雲氣文)과 꽃무늬로 연결하고 있다. 그러나 밑에서 위에까지 생명력 있는 조형(造形) 전체가 바로 기정신이라 해도 좋고, 신이라 해도 좋고, 무한한 우주라 해도 좋은 형상화가 아닌가. 전체가 상상력의 산물이며 동시에 우주의 본질이다. 바로 그것이 도교적인 것과 불교적인 것을 환상적으로 종합하여 장엄한 우주관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우아하고 힘찬 향로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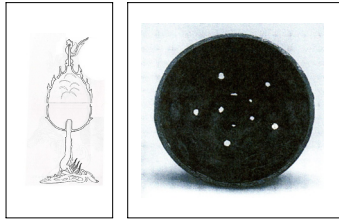
2.4.2 기능적 측면

X선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원형관은 뚜껑의 상부에서 시작돼 보주를 지나 봉황의 몸통까지 연결되며 [그림 8] 봉황의 가슴부위에는 작은 향연구(香煙口) 2개가 뚫려있다.[6]

향을 피웠을 때 향연이 봉황의 가슴에서 솟아오르는 효과를 연출하고 뚜껑과 상부장식의 결합도 단단히 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향연구는 모두 12개가 뚫려있다. 봉황의 가슴팍에 있는 2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그림9]는 뚜껑의 산악문양 뒤쪽에 배치돼있다. 위에서 내려다 보면 향연구는 이중의 정오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내외 구멍은 일직선을 이루고 있다. 구멍을 통하여 곡선을 그리면서 피어오르는 향연기는 마치 높은산의 구름을 연출하여 금세라도 봉황이 날아오를 듯한 연상을 주어 신선 세계를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적감동과 향로안에 타고남은 재를 버리고 향을 새로담기 편리하게고안한 뚜껑과 받침부분을 분리시킬 수 있도록 기능면에서도 완벽한 향로라 할 수 있겠다.

받침은 용이 한 다리를 치켜들고 꼬리와 나머지 세 개의 다리를 이용해 용트림하는 자세로 둘러져 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파도문, 연화문, 소형의 구(球)를 배치해 전체가 하나의 원형 굽을 이루는 것과 달리 받침 중 바닥에 닿는 용의 세 개의 다리는 정삼각형을 이룬다. 이것

역시 향로가 치밀한 과학적인 설계에 의해 제작됐음을 보여준다.



[Fig. 8] Cross-sectional diagram
[Fig. 9] The section of cover and smoke hole

2.4.3 재료 및 기법 측면

1400년전 당시의 금속공예기술은 현대의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하였는데 이 향로는 당시의 금속공예 기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청동을 재료로 하여 밀납법으로 정교하게 주조하고, 아말감 처리하여 도금하였다. 금동대향로는 성분 분석결과 구리(15.8%)와 주석으로 합금된 청동을 갖고 주조한 것으로 금-40% 구리를 수은에 녹여 0.01mm 두께로 도금한 사실이 밝혀졌다.[7] 향을 피워 내기위한 공간적 구성과 살아 움직일 듯한 용의 모습을 정교하게 새긴 조각과 완벽한 주조기법, 치밀한 도금술은 당시 백제의 과학기술과 예술성이 이루어낸 백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금동대향로는 중국향로와 달리 창의성과 조형성, 불교와 도교가 혼합된 종교와 사상, 백제시대의 공예와 미술문화, 제조기술까지 파악해주는 귀중한 가치를 제공해주고 있다.

3. 결론

이상으로서 금동대향로의 형태적 특징과 조형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보았다.

첫째, 백제금동대향로의 기본형상은 중국한대의 박산향로이지만 크기가 중국의 향로보다 유래가 없이 크며, 용을 받침에 표현한 것도 다른 박산향로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특징으로 조형성이나 독창성 등에서 탁월한 백제 예술의 감각을 유감없이 발휘한 명품이다.

둘째, 백제금동대향로는 향을 피웠을 때 우리에게 미적감동을 주는 것은 물론 타다 남은 향재를 버리고 또 새

로 담기 편리하게 용모양 받침과 연꽃모양의 아래 그릇을 서로 분리시켜 기능면에서도 편리함을 갖춘 완벽한 향로이다.

셋째, 시대별, 종교적인 영향에 따라 박산향로의 형태가 더욱 단순화되고, 뚜껑부분의 향연구 부분이 커지면서 뚜껑이 없어지며, 기능적 분류(거향로, 병향로, 현향로)에서 용도별 분류로(예배용, 완향용, 의식행렬용) 전환 되었다.

넷째, 향로의 측면에서 관람 시 향연구가 보이지 않도록 뚜껑부분의 중첩된 봉우리 사이에 향연구(香煙口)와 봉황의 가슴부분의 구멍을 뚫어 분향 시 삼라만상이 파노라마처럼 생생한 예술적 연출과 함께, 분향이 잘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제작하였다.

다섯째, 받침 중 바닥에 닿는 용의 세 개의 다리는 정삼각형을 이룬다. 즉, 향로의 지면에 접촉 시 몸체부분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 시 고려한 것으로 본다.

여섯째, 전체적으로 완벽한 조형성과 삼라만상의 표현은 환조에 가깝게 세밀하고, 정교하게 조각하여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고, 섬세한 주조기법과 도금기법은 당시 백제의 과학기술과 예술성이 이루어낸 백미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백제금동대향로가 지닌 조형적 특징을 재발견하여 현대적인 기능과 다양한 재료의 소재와 기법과 용도를 접목한 백제문화 상품공모전을 통한 지속적인 개발과 전시, 지역문화 축제인 세계대백제전을 통하여 한국공예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REFERENCES

- [1] Citation of Doosan Encyclopedia.
- [2] K.D.Lee, History of Backje, Jurusung publishing Co. pp.224~225, 2006.
- [3] D.H.Lee, Study of Backje Ancient Nation, Ilji publishing Co. p.70, 1995.
- [4] J.R.Sea, The Gilt Bronze incense burner of Backje, Hakgojea publishing Co. p.330, 2001.
- [5] above books. p.194, 2001.
- [6] Data Services from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 [7] KAIST, A Study of Text Data for Development of science and culture. p.103, 1998

신 대 택(Sin, Dae Taek)



- 1999년 3월 : 대전보건대학교
주얼리디자인과 교수
- 관심분야 : 금속공예, 주얼리디자인
- E-Mail : dtshin@hit.ac.kr

박 승 철(Park, Seung cheol)



- 1998년 9월 : 공주대학교 조형디자인학부 교수
- 2013년 9월 : 공주대학교 문화예술산업연구소 연구원
- 관심분야 : 귀금속공예, 주얼리디자인
- E-Mail : scpark@kongju.ac.kr